

## 부산 경제 제2도시 위상 흔들



▲ 부산 광복동 패션거리 일대 모습. 사진=나무위키

부산의 경제 활력도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한국 제2도시로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날 국제청이 최근 확정된 전국 사업자 현황(2019년 기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자 현황은 기준년도 신규 사업자와 폐업 사업자 동향이 반영된 가동 사업자 수 통계로, 경제 활력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산 사업자 수는 49만 6천345명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지역별 사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을 확인한 결과, 부산은 3.1%로 전국 평균 4.0%보다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서 서울 3.0%, 대전 2.9%를 제외하면 최저 수준이다. 서울 사업자 수 증가율이 낮은 것은 경제력 집중에 따른 도시 과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제2도시 위상을 놓고 경쟁하는 부산과 인천을 비교하면, 절대적 사업자 수에서 인천이 2019년 43만1천526명으로 부산보다는 6만5천 명이 적었지만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증가율에서 인천은 4.5%로 부산(3.1%)을 줄곧 앞질러 왔다.

신규 사업자 수만 보면 2017년부터 인천은 부산을 앞서기 시작했다. 부산 신규 사업자가 줄고 폐업자 수가 늘어나는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이면 인천 사업자가 부산을 추월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부산이 한국 제2의 도시 위상을 인천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사업자 수 감소는 경제 활력도를 떨어뜨리고, 일자리 감소와 이에 따른 인구 역외 유출, 지역총생산액(GRDP) 감소 등과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 소비지출 '역대 최대 감소'에도 복권 소비는 '증가'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복권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가통계포털(KOSIS)은 이날, 지난해 가계 월평균 복권 지출 금액은 590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고 밝혔다. 복권 지출 금액이 낮은 이유는 복권을 사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해 전체 표본가구의 지출 금액을 평균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로 실제 가구별 복권 구매 금액은 알기 어렵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은 비교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3% 줄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같은 조사방법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복권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고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가구당 590원이

라면 적지 않은 수준으로, 대부분 가구는 복권을 사지 않더라도 복권을 사는 가구는 큰 금액을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권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불황이 이어진 가운데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복권에 눈을 돌린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복권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액은 4조 7,0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해 복권 통합 발행이 시작된 200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0년 복권 관련 인식' 조사에 응한 전국 만 19세 이상 1,020명 가운데 56.9%가 '최근 1년 이내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복권 구입 주기는 로또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구입하는 사람이 23.7%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매주(21.8%), 2주에 한 번(15.9%) 등 순이었다.

## 한국 출산율 2년 연속 전세계 꼴찌



▲ 한국의 출산율과 어린이 비율이 전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사진=shutterstock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어린이 인구 비율마저 꼴찌로 추락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인구기금(UNFPA)이 이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에 그쳤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 (My Body Is My Own)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내리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고인 니제르(6.6명)의 6분의 1 수준으로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인구에서 0~14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이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일본,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다.

한국의 14세 이하 인구 비율은 세계 1위인 니제르(49.5%)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세계 평균(25.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성장 속도는 둔화하는 모습이다. 2015~2020년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2%로 세계 인구성장률 1.1%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6%로 지난해 15.8%에서 0.8%포인트 증가했다. 세계 평균 9.6%를 훌쩍 넘어 전체 198개국 중 42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여성 86세, 남성 80세로 각각 4위, 19위에 올랐다. 세계 평균은 여성 75세, 남성 71세다.

확실하게 다른 치료요법과 탁월한 효과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 위장병
- 각종 통증
- 우울증
- 불면증
- 알러지, 피부병
- 공황장애
- 비만, 불임
- 오십견
- 목,허리디스크
- 중풍 후유증
- 소아 자폐증
- 파킨슨병, 치매



얼바인에서 제일 크고 쾌적한 한의원  
 훌륭한 치료, 저렴한 가격  
 정확한 진맥과 훌륭한 처방

난치병을 잘 치료하기로 소문난 얼바인

## 북경 차 한의원

Dr. 차계향 Ph. D., L.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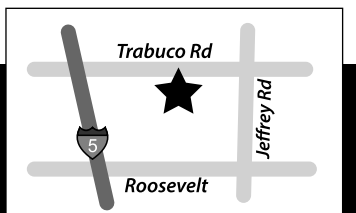
- 중국중의과학원 의학박사 (중의내과)
- 북경중의약대학 의학석사 (침구추나)
- 요녕중의약대학 의학학사 (중의과)
- 세계 최고권위 중의 명문대학에서 중국 MD 및 중의사 자격증 취득
- 신경내과, 소화기내과 및 임상침구학 전공
- "만성위염의 중의 임상치료가이드"편찬 참여
- 중국 최고권위 중서의 종합병원 서원병원 동적문병원 등 대형대학병원임상 13년, 전체 임상경력 23년
- 1급 양생기공사 자격, 기공수련 30여년
- 미국내 중의대 교수

기 침(氣針)

에너지 경락 추나 마사지

기공진복(氣功振腹)

태극 불 부항, 옥 경락 팔사



www.acupuncturecha.com

北京中和國醫堂

PPO 보험  
 취급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가능  
 949.426.9070 / 626.899.5166  
 5400 Trabuco Rd. Suite 130, Irvine, CA 92620